

돈보다 예수님

성경본문 <사도행전 3장 1절 ~ 10절>

[1] 제 구 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2]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3]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4]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5]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6]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7]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9]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10]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오순절이 지나자,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숨어 지내던 제자들의 태도와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하였고, 복음을 위하여 목숨까지 걸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3,000명이 넘는 신도가 늘어나기도 했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며, 사도들이 일으키는 기사와 표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공동체)에는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갈 때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구시이면,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성전으로 들어갈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던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1.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1] 제 구 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2]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3]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그 곳에 얼마나 오랜 동안이나 나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그의 삶이 기도하러 가는 예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변화하게 됩니다.

그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구걸할 수 있도록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중에서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그를 데리고 와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궁극적인 외로움과 두려움을 해결하여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꿈꾸었던 세상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것을 단편적이지만 짐작할 수 있도록 하는 표현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에게 사람들은 그를 구걸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거나 구걸을 통해 그를 먹여 살려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그에게 전혀 다른 삶으로의 전환점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통하여 그 분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4]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기억해 주는 사람도 없을 것 같고, 그에게 사랑을 담아 동전을 건네 준 사람도 많지 않았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고 계셨고, 제자들을 통하여 그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세상에서 구걸하는 심정으로 살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싶습니다.

2. 은과 금이 없어도, 그것보다 소중한 예수님의 이름

[6]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7]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9]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10]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자신들을 향하여 무엇인가 얻을 것이 있을까 싶어서 바라보았던 구걸하는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능력을 나누었습니다.

은도 없었고, 금은 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우리를 부요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은 자신의 한계가 성전 앞, 구걸하기 위한 앉을 자리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 기대할 수 있었던 동전 몇 푼이 그를 울게도 하고, 웃게도 하는, 삶의 기준 전부였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한계를 넘게 하셨고, 그를 연약하게 만들고 현실에 안주하도록 하는 환경과 조건 자체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 사람에게 구걸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았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완전히 바꾸시는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소중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돈보다 예수님입니다.

<기도제목>

1. 기도하는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게 하소서.
2.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